

2002학년도 수능 언어영역 해설

<듣기>

1. 이 대화에서 남학생이 문제삼고 있는 언어표현상의 잘못은 ‘되다’를 ‘되어지다’로, ‘보이다’를 ‘보여지다’로 사용한 ‘이중 피동’이다. 즉 ‘되다’나 ‘보이다’는 이미 피동의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지다’가 필요 없는 단어임에도 외국어로 된 글을 번역할 때, 흔히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⑤의 ‘그 문제는 난해해서 잘 풀려지지 않는다.’는 표현 또한 번역투의 문장으로 대화 속의 남학생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는 ‘그 문제는 난해해서 잘 풀리지 않는다.’로 고쳐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답 ⑤

2. 이 문제는 들려 주는 내용을 잘 듣고 주어진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 시간 뒤에 다시 모여야 할 장소는 ‘대적광전’ 앞이다. 들려주는 내용에서 대적광전이 위치한 장소는 구광루를 지나 네모반듯한 안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이는 장소는 대적광전 앞이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답 ③

3.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에 전력면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홈그라운드인 이점으로 인하여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해설자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투지와 근성, 정신력이 뛰어난 점과 다혈질인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단점들을 들어 시청자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물론 해설자가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팀을 작은 고추에 비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나운서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해 한다거나 유머로 받아넘기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답 ④

4. 들려주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한 정보는 첫째, ‘물은 얼면 부피가 커진다.’는 것과 둘째, ‘물은 열용량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②빙산이 물에 뜨는 것은 얼음이 물보다 가볍다는 것에서 추론할 수 있고, ③사막 지역의 일교차가 큰 것은 사막에는 물이 적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④겨울에 뽕뽕 언 수도관이 터지는 것은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⑤는 얼음이 물보다 가벼워 물에 뜨기에 수중 생물이 생존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답 ①

5.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대담 또한 듣는 사람이 라디오를 청취하는 일반인이므로 듣는 사람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자는 ‘롱 쇼트 기법’, ‘미장센’ 등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담에서 아쉬운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 용어를 쉬운 말로 풀이해 주었으면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답 ②

6. 대담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화는 우리의 판소리를 소재로 한 것으로, 흥행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담에서, ‘사운드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 ‘소리, 그것이야말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최고의 배우, 즉 주인공을 드러내는 홍보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 ②

<쓰기>

7. 자원 봉사단에 들어오도록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자원봉사의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근거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처지를 보여 주는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자원봉사의 사회적 필요성'과는 거리가 먼 근거이다. 오히려 '자원 봉사가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②

8. 똑같이 꽃병을 깨뜨렸지만 한 사람은 괴로워하며 자책하고 있고, 한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두 그림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로 글을 쓸 때, 두 사람의 행동의 차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사람의 행동이 바람직하다.'는 대조의 방법이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자기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는 논증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②

9. (가)의 개요는 '평화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에 (나)의 개요는 최근의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개요를 (나)의 개요로 고쳤다면 '문제의 현실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답 ①

10. (나)의 개요에서 서론은 '위기에 빠진 세계 평화-최근의 국제적 분쟁 상황'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현재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답지의 ①번에서 제시한 서론의 주요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제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오히려 서론에서는 최근의 미국 테러 사건이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같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②

11. 먼저 주어진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 내용상으로는 '아버이의 희생'과 '아버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어조'를 유지해야 한다. ②의 둘째 연에서 '한평생을 희생으로 보내셨네'는 아버지의 희생을, 3행의 '보답할 길 아득하네'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2행과 3행의 '-네'는 같은 어미로 동일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답 ③

12.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런 사실'로 보아 ㉔에는 첫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구체적인 예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현대시>

13. (가)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머니 그리고 고향을 그리움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나)시의 화자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다)시의 화자는 북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세 시의 공통점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14. 시에서 시적 화자는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 시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달으로써 시인과 화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자가 시인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다. 답 ②

15. (나)시는 힘든 노동으로 인한 어머니의 아픈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보기>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빈 방을 지키는 소년의 쓸쓸함이 중심 내용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아픈 마음’은 (나)시를 <보기>와 같이 바꿀 때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다. 답 ④

16. ‘너’가 있는 곳은 북쪽 어느 마을이다. 그러나 화자가 위치한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시의 내용으로 보아, ‘너’가 있는 곳보다는 남쪽 어느 곳이다. 따라서 ‘화자가 있는 곳과 너가 있는 곳을 병치시켜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은 잘못 된 것이다. 답 ⑤

17. (다)의 ‘작은 마을’은 화자가 ‘너’를 두고 온 고향을 의미한다. (가)시에서 ‘새빨간 감’ 또한 화자가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사회>

18. 기업의 이익에는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 이익이 있는데,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락에서 ‘기업이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를 ‘단기적 이익을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얻는다’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답 ②

19.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차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이해 집단의 요구도 만족시키는 사회적 이익도 추구한다고 했다. 이런 기업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환경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하는 것’과 같다. 답 ④

20. ‘기업 : 이익’의 관계는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에 있다는 것이다. ‘정당 : 정권 획득’의 관계 또한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에 있으므로 가장 유사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21. ‘칫솔질’은 ‘치(齒)’라는 한자어와 ‘솔질’이라는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그런데 뒷말의 첫소리가 [솔]이라는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제30항 2-(1)의 규정에 해당된다. 답 ③

22.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업원들을 연수시키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기 어렵다. 답 ①

<언어>

23. (나)에서 보면 ‘센누끼’를 대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개뽑기’를 권장하였지만 민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병)따개’가 쓰이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자

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대체한' 예가 된다. 답 ⑤

24. '몰래'와 '카메라'를 결합하여 만든 '몰래카메라'는 언어 표현이 진부하여 신선한 맛을 가진 새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는 세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답 ③

25. '벤또, 돔부리'가 '도시락, 덮밥'으로 바뀌게 된 '강력한 동기'는 '벤또, 돔부리'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민족 정서가 많이 반영된 까닭이다. 답 ⑤

26.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방가', '컴' 등은 '반가워요, 컴퓨터'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신용어들이다. 이는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표현을 새롭게 하려는 욕구와 글자 입력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통신상에서 특정인들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은어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과학>

27. 이 글은 아펠과 하켄이 지도의 채색과 관련한 '사색문제'를 증명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증명 과정에 컴퓨터가 활용되었다는 것 때문에 수학적 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수학자가 많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수학자의 수는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 글의 필자는 사색문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활용되었고, 이는 수학 연구의 방법과 수학적 증명의 개념을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색문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학 이론이 나왔다는 내용은 이 글을 통하여는 알 수 없는 사실이다. 답 ③

28. 이 글의 중심 내용은 한 세기 이상 끌어온 '사색 문제'를 증명하는데 컴퓨터가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사색 문제를 증명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명이 이루어진 방법, 즉 컴퓨터를 활용하여 증명을 하였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수학계의 난제 해결'이라는 표제가 이 글의 논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①

29.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것끼리 묶는 것을 '구별'이라 하고, 같은 범주 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한다. ㉠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이라는 같은 범주 안에서 나누는 것이므로 구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답 ①

30. ㉡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사람이 확인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면 된다. ㉠은 주식 시장의 변수들을 컴퓨터를 통하면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컴퓨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31.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수학자는 수학 연구의 방법뿐만 아니라 '무엇을 증명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마저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발전시킨다면, 수학적 증명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검토도 이제는 수학적 논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답 ⑤

<현대소설>

32. 이 글은 일제 강점기하에 몰락한 양반인 황 진사라는 인물을 내세워,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낡은 관념에 집착하여 방황하는 인물의 일그러진 삶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보게 하고 있는 소설이다. 답 ②

33. (가)에서 서술자는 ‘지략’과 ‘조화’를 부러 보고 싶어하는 황 진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①에서 서술자인 ‘나’ 또한 대상 인물에 대해 딱하고 신경질나게 한다고 하면서 못마땅해 하고 있다. 답 ①

34. 이 글의 황 진사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지만 겉으로는 가문과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인물이다. 그리고 <보기>의 초시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가문에 대한 자존심과 애착이 대단한 황 진사가 ⑤와 같이 죽보를 팔겠다는 말을 할 리는 없다. 답 ⑤

35. 희곡에서 ‘독백’은 상대방이 듣지 못하는 혼자말로, 주로 인물의 생각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체 일어 죽지나 않았나’는 서술자인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로 희곡으로 바꾼다면 독백으로 처리하기에 알맞다. 답 ②

36. 이 글에서의 ㉡는 ‘사용하고’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보기>에서의 ㉢는 ‘가깝게 둘 사이를 닿게 하고’의 의미로 쓰였다. 답 ⑤

<고전시가>

37. <보기>에서 음란하고 방탕하며 외설스러운 노래를 비판하고, 온유한 태도로 한가롭게 풍류를 읊은 노래가 좋다고 평하고 있다. 또한 시속(時俗)의 말로 되어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작품이 좋다고 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나)는 죽음은 허망한 것이니 살아 생전에 후회없이 즐겁게 지내자는 내용으로 세상을 호탕하게 살려는 태도와 거리가 멀 뿐더러 온유하고 공손한 뜻이 없어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답 ②

38. ㉠은 두보 자신을 뜻한다. <보기>에 의하면 이 시를 지을 당시 두보는 세상으로부터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으나, 그는 임금에게 충성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을 찾으면 되는데, ④의 작품이 이와 가장 유사하다. ④의 작품은 초장에는 세상으로부터 기회를 얻지 못한 화자의 모습이, 중장에서는 가난한 화자의 모습이, 종장에서는 님(임금)에 대한 충성이 담겨 있다. 답 ④

39. (나)는 죽음이 덧없기에 살아 생전에 즐겁게 지내자는 내용이다. 원숭이는 무덤의 쓸쓸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소재일 뿐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소재가 아니다. 따라서 ②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답 ②

40. (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중진미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아름다운 봄 경치를 화자 혼자 즐기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시의 정경을 그리는데, 시를

주고받는 인물들을 배치하는 것은 이 시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답 ③

41. ㉔는 쓸쓸하고 을씨년스러운 무덤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의미가 상반되는 구절을 배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답 ④

<고전산문>

42.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토끼는 남의 권세를 빌려 거드름을 피우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별주부를 사냥꾼이 끌려 놓은 화약 심지로 착각하여 도망가는 장면이 나온다. 따라서 ②는 잘못된 설명이다.

답 ②

43. (가)에서 별주부는 토끼가 곰이나 범보다 낫다고 하면서 몸이 민첩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여유가 있는 것이 짐승 중 제일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별주부는 토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

답 ②

44. ㉑은 곰과 범의 외모를 통해 그 특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즉 곰의 작고 털이 덮인 눈을 들어 태양 정기가 부족하며 미련하다고 하고, 범의 코 짧고 줄기 없어 얼굴 가운데가 움푹한 외모를 들어 단명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답 ③

45. ㉔는 등장 인물의 생각이 아니라, 토끼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이다. ㉖는 별주부, ㉔㉕㉖는 토끼의 생각이다.

답 ①

46. <보기>에 비해 지문에서 한문투 어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등장 인물들의 긴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생각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같은 내용임에도 서사 진행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지문에서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다.

답 ①

<예술>

47. 이 글을 볼 때, 전통의 풍물놀이보다 이를 무대 연주 음악으로 바꾼 사물놀이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사물놀이의 영향으로 풍물놀이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⑤

48. 이 글을 바탕으로, 사물놀이에 대한 옹호자가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반박할 때는 전통 음악의 창조적 계승, 대중성, 서양 음악과의 협연 등 사물놀이의 긍정적 측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종합 예술’은 사물놀이보다는 풍물놀이가 가진 본질적 특성으로 ‘현대는 종합예술의 시대’라는 것은 오히려 주장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

답 ②

49. ㉑에서 징과 썰매리는 쇠소리를 내고, 북과 장구는 가죽 소리를 내는 소리의 어울림을 통해 음양 조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즉 각각의 특성을 없애지 않고 그 특성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사물놀이와 풍물놀이에 적용한다면 사물놀이와 풍물놀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정체성을 살리는 가운데 서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50. ㉠‘타성에 젖어 들고’는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버릇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타성에 스며들고’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버릇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과 바꿔 쓸 수 없다.
답 ④

51. <보기>의 내용을 보면, 피아노와 사물놀이가 같이 연주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굿거리장단에서 휘모리장단으로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치고 달고 맺고 풀고, 격렬한 반복’을 통해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춤과 발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 즉 동작에 관한 것은 <보기>에 나와 있지 않다.
답 ③

<수필, 희곡, 시나리오>

52. S# 74의 철호와 영호의 대화를 통해 두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전차샷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는 취직할 수 없다는 영호의 말이나,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살려는 형인 철호를 비판하는 말을 통하여 영호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 살아가려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철호가 소심하하고 용의 주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53. S# 69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하던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와는 달리 고생하는 부인을 보며 철호가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철호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는 없다.
답 ③

54.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것은 ‘느리지만 꾸준한’ 것을 말한다. 이는 철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처럼 인생을 살아왔더라면 나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던 말이다.’는 철호의 말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55. ‘내레이션 기법’이란 해설자가 해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문 (가)에는 이러한 내레이션 기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단지 (가)는 인물의 행동, 효과음 설정 등을 지시해 주고 있다.
답 ③

<인문>

56. 첫 번째 단락의 내용 중 ‘우리는 잠을 잘 때 옷을 벗는 행위와 비슷하게 자신의 의식도 벗어서 한쪽 구석에 치워 둔다’는 것과 ‘잠자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면 의식의 세계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으며’를 통해 잠잘 잠잘 때는 깨어 있을 때에 비해 내적 욕구에서 해방된다는 할 수 있다.
답 ④

57. 이 글은 꿈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답 ④

58. 이 글의 넷째 단락에 ‘우리는 꿈속에서 평소에는 억누르고 있던 내적 욕구나 콤플렉스를 민감하게 느끼고, 투사를 통해 그것을 외적인 형태로 구체화한다.’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이성계가 임금 왕(王)자를 상징하는 꿈을 세 번씩이나 꾸었다는 것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상징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59. 마지막 단락에 ‘꿈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준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에는 옷이 상처나 결점을 가려주는 것처럼 ‘깨어 있는 의식이 내면 세계의 관찰을 방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답 ③

60. ㉠‘덮개’는 ‘깨어 있는 의식’을 비유한 말이고, ㉡‘의식’ 또한 깨어 있는 ‘의식’을 말한다. ㉢‘외부에 대한 관심’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며, ㉣‘깨어 있는 상태’ 또한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외적인 형태’는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내적 욕구나 콤플렉스가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나머지와 문맥적 의미가 다르다. 답 ⑤